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2차, 회개에 대한 예언적 부름, 루가복음 13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22, 회개에 대한 예언적 부름,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성경 e-러닝 강의 시리즈의 누가복음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뒤에 계속되는데, 저는 그것을 결단으로의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충성심을 요구하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부름은 사람들이 제자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가 회개로의 예언적 부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예언적 신탁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묘사하는 루크 티모시 존슨의 언어를 일부 빌려온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예언적 부름에서, 저는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특정 시간 또는 이 특정 강의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13장을 다루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섞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아니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더라. 그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저는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 삼 년째 왔거늘 하나도 얻지 못하였나이다.

잘라내세요. 왜 땅을 써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그냥 두세요. 제가 그 주위를 파고 정원을 만들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내년엔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라내도 됩니다.

이제 그는 교외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보라, 열여덟 해 동안 병들게 하는 영을 앓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완전히 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는 병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얹었고, 즉시 그녀는 곧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교외에서 병을 고치신 것에 분노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엔 여섯 날이 있습니다. 여섯 날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날에 와서 병을 고치십시오. 교외에서가 아닙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교외에서 각자 자기 소나 소를 구유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사탄에게 열여덟 해 동안 매여 있었는데, 저 교외에서 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모든 대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모든 백성은 그가 행한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무엇에 비할꼬? 마치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은 한 알의 씨앗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요? 그것은 여자가 가져다가 나무에 감추고 밀가루 몇 손갈을 넣어서 온통 누룩이

되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회개에 대한 예언적 부름에는 강조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제를 명확히 합시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루크 티모시 존슨의 언어에서 그것을 예언적 부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예언적 부름에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거나 멸망하라고 부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은 문단의 앞부분에서 그 전통이 반항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화를 위한 신의 부름. 예언적 언어로, 무언가는 항상 끝에 존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마지막 사항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예언적 담론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개종하거나 변화해서 그 길로 간다고 말하는 간단한 방법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나 확신을 붙잡고 인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도 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변화는 실제로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죄책감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를 바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또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개인의 의지를 바꾸는 것은 인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제가 행동의 변화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들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목적과 성향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언적인 어조로 회개를 촉구하시며, 사람들에게 왕국이 무엇인지 듣고 왕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일깨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소리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게 하는 초기의 촉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는 빌라도와 관련된 사건 중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누가가 빌라도를 언급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릴리 사람들과 관련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누가의 줄거리에서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예수의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곳이다.

그래서 누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연루되었고, 일부는 빌라도 전통에 연루된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가 사용한 사실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는 매우 능숙한 수사학자이자 능숙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사람들과 빌라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리가 수난주간에 도달할 때쯤에 일어날 일들 중 일부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는 또한 실로암 탑에서 죽은 18명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결과를 겪지 않았는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전 강의에서 예수께서 제자로서의 이 겉보기에 가혹한 부르심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언적인 어조로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승리의 비유는 청중에게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같은 비유가 있고, 마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해석은 매우 흥미로운데, 추수철이 되었을 때 주인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3년 후에 다시 와서 다시 또 다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나무가 벌을 받을 만하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의 청중은 답을 알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는 이미 갈릴리 사람들과 빌라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로암 탑과 함께 18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3년 동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누가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주목하세요.

누가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누가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 그 열매가 실제로 토양을 낭비하고, 땅을 낭비하고, 땅의 거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원에 대한 에너지를 원천에서 끌어내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비유에 대한 루가의 서술에서 다른 것을 주목하세요. 루가는 포도원 주인이 아직 자르지 말라고 말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멸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들어와서, 오, 안 돼, 아직 자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좋아, 그럼 1년 더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해에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가장 분명한 진술, 가장 분명한 시간에 하나님 왕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할 나무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져오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는 기대하고, 누군가는 열매에서 한 가지를 찾고 있을 수 있지만,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청중석에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예상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다음 평가의 시간이 오면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겪어 온 한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올 것입니다. 7장에서 보았듯이, 이 여인은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여인이 나타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그녀가 신성한 치유를 받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신성한 치유를 받았을 때, 회당의 통치자는 화를 냈습니다. 회당의 통치자가 무엇을 할지 주목하세요. 이 회당의 통치자는 자신의 비난이나 진술을 예수에게 직접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에 화가 났지만,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할 시간이 6일 있습니다. 그 6일 동안 여기로 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치유와 해방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안식일에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받는 것은 그녀의 안식일 의정서를 방해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약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치유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한 여인의 치유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회당 관원에게 지시하고 그를 위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어떤 번역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가 당신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따르면 그는 왜 위선자가 아닌가? 첫째, 예수가 치유를 행한다는 사실에 의지한다. 당신은 치유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예수.

왜 군중에게 가나요? 위선자.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는 예수에 따르면 위선자입니다. 다른 이유로.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꺼이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의 그 여인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문제의 여자는 유대인 동포입니다. 문제의 여자는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남자에게로 돌아와서, 당신 자신의 해석과 이해로, 가축, 심지어 동물조차도 상쾌해지려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풀려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속박이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병으로 인해 생긴 그녀의 뒤틀린 자세를 사탄이 그녀의 상태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그는 이 여자를 풀어주기 위해 회당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장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 뭔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리더십 경연 대회에서 리더를 훈련하거나 때로는 교실에서 종종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귀신 들렸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사탄에게 억압을 받았든, 어떤 식으로든 사탄에게 얽매었든, 예수께서 나사렛 선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포로를 해방하기 위해 왔다는 것처럼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 여인은 사로잡히지 않았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는 사탄에게 억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루크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왕국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는 가르치기 위해 회당에 갔고, 거기서 그는 이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그가 사탄의 손에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측하기 전에, 누가는 사탄이 하나님 왕국의 대적이며, 왕국의 사명의 일부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한 1서를 인용하자면, 이와 관련하여 완전히 다른 시험인데, 요한이 요한 시대에 말했듯이, 이런 이유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스터 씨앗은 나무가 자라서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의 영향력.

그는 이어서 효모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킹은 제가 도전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효모를 밀가루와 잘 섞는 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무언가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건조 효모를 완벽하게 측정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빵 제조기에 넣었습니다. 기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은 빵 제조기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았을 때였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액체를 조금 더 넣어야 했어요. 그게 제가 제대로 못 했다는 첫 번째 징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오,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 일주일 전이나 그보다 덜 전에, 제가 효모와 효모와 밀가루의 비율을 맞추는 데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청중을 빵을 굽는 여자의 주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 청중이 저처럼 요리하는 법도 모르고 효모를 제대로 넣는 법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할 때 효모는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은 밀가루에 감염되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빵으로 구워지기 전에 크기가 커지게 하는 효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효모의 영향은 살펴봐야 하고, 마스터 씨앗의 영향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과 관련하여 비교적 또는 유추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매우, 매우 크고 영향력 있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3장에서 선지자가 회개를 부르러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회개를 부르면 그는 사람들에게 죄에 저항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에 도착했을 때, 그의 사명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악마의 요새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축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줄 안다면, 그렇습니다. 인자는 마귀에게 속박된 자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왕국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그의 마지막 두 이야기에서 보여 주듯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13장 22절에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을과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르치고 여행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그 곳에서는 울부짖음과 이를 갈음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가 쫓겨난 것을 보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다. 보라,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고, 어떤 사람들은 첫째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서 본 것과 같은 친숙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왕국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개요를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개념적 전환을 하시고, 누가는 개념적 전환을 하십니다. 실례합니다만, 겨자씨와 누룩에서 은유로 전환합니다.

만약 소수가 차이를 만들고 있고 상당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면, 그것은 거의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여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가 계속 나아가면서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그것을 아주 잘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기대되는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이 질문자나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허용될 수 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의 범위나 크기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좁은 문을 사용하여 매우 큰 집이라는 장소에 장면을 설정했습니다.

고속도로 대신,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당신은 여기서 영지로 들어가는 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집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설명하셨듯이, 집 주인이 입장 조건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항상 유대교의 두 번째 성전에서 메시아와의 종말론적 만찬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기의 초대는 가치가 없습니다. 초대는 누군가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것이지만, 참여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민감합니다.

여기의 종말론적 이미지나 여기의 종말론적 이미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접근이 있고 볼 수 없는 종말의 장소에 올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미지는 종말론적 행복 상태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 근거로, 그는 그들에게 왕국의 가르침에 응답하도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강조할 또 다른 점은 예수께서 그와 교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에스카톤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와 함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또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왕국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식사를 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을 볼 때, 그들은 거기에 있고 싶어할 것이고,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경에 공명하는 이미지를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자신이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도, 남편과 아내도 왕국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분열될 것입니다.

이 대화와 선지자로서의 왕국의 분위기를 설정한 후, 예수님은 헤롯과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적 사역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왕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데 있어 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는 와서 예루살렘의 복지와 안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31장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와 그의 가르침에 질려 있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대사를 놓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당신을 구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당신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부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그것이 예수에게 탈출을 요청하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헤롯을 언급하며, 보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일, 모레 내 길을 가야 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곳으로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도성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는가. 그러나 네가 기꺼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네 집이 버림을 받았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빠르게 강조하고 싶은 다섯 가지 핵심 사항.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헤롯의 암살 음모에 대해 알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부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진짜이고 진정한 관심이 없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헤롯의 음모에 대해 그에게 알리러 온 것은 예수의 사역을 전복하고, 그들이 예수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요청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한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였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몇몇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에게 탈출을 요청하기 위해 선의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해설과 책을 읽고 따르면,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걸었다는 관점으로 일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헤롯을 지칭할 때 쓰신 언어를 보세요. 그는 그를 폭스라고 부릅니다. 그는 헤롯을 폭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여우. 그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거나, 헤롯에게 그가 여우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가 바로 여기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헤롯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예수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도시입니다.

네, 예수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3장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라고 말하도록 설정했고, 그는 독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이 죽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와서 참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는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고민하는데, 예루살렘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것을 이해하기를 얼마나 바라시지요. 청중에게 긴장감을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녀의 선지자 예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환영하고 시편 118편 26절에 동참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과 13장 사이에 산상 설교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시된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적 사역은 그가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를 설명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헤롯 폭스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적 선례가 있다고 비난할 때 도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헤롯의 바람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 수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에 반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기득권 자체, 즉 그의 백성이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회개와 좋은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를 경청하는 사람들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사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2성전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려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조상들, 유대인의 족장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전 두 강의와 이번 강의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가혹하고 강한 진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이 오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랑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사랑은 잘못에 지나치게 연루된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을 바꾸도록 부르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물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서 물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삶의 조건과 마음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의 핵심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라는 확장된 초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왕국의 축복에 참여할까요? 저는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의 메시지에 굴복하는 동안 우리가 강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심지어 분투하고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충실하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리즈에서 무언가를 배웠으면 합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하세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버림받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패키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압니다.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2, 회개에 대한 예언적 부름입니다. 누가복음 13장.